관계부처합동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: 2026. 11. 13.(금) 11:00 이후(11. 13.(금) 석간) / 배포 : 2026. 11. 13.(금)

ICAO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범정부 총력 대응

- 12월 2일부터 평가, 항공기 운항 등 9개 분야 국제기준 이행 실태 확인
- 범정부 합동대응반→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하고 최종 점검

□ 정부는 12월 **국제민간항공기구**(ICAO)의 **항공안전평가**(USOAP)를 앞두고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(11.13., 정부서울청사)에서 **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**을 집중 논의했다.

□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**평가**하는 제도이다.

○ 이번 평가는 **12월 2일부터 12월 15일**까지 진행된다. ICAO 평가단은 국토교통부, 기상청, 소방청, 해경청,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과 주요 항공사와 공항 등 12개 **정부기관 및 산업계** 현장을 방문해 관련 **서류**를 검토하고 현장의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.

○ **평가 대상**은 법령, 조직, 종사자 자격, 운항, 감항성*, 사고조사, 항행, 공항, 예방적 안전관리 등 **총 9개 분야**이다.

*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기에 적합한 성능과 상태

□ **정부는 그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** 국방부, 기상청, 소방청, 해경청, 공항공사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**범정부 대응반**을 운영해왔다.

○ 특히 **국제기준이 국내기준에 충실히 반영**되었는지 **자체 검증하고** 국제기준 대비 미흡했던「항공안전법」 및 「공항시설법」 등 **관련 법령을 정비**했다.

○ 또한, 공항 건설·운영 업무에서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항공청에 **전담조직을 신설**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 지방항공청이 맡아 온 공항이착륙·접근 관제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해 항공교통관리의 **품질과 안전**을 함께 **높여 나갈 예정**이다.

□ 정부는 **11월 2일** 기존 ICAO 항공안전평가 「범정부 합동대응반」을 「**합동 수검대책반**」**으로 전환**했다. 평가 전까지 분야별로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**미비한 사항을 집중 보완**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곽영필 (044-201-4244)
		담당자	사무관	권혁진 (044-201-4681)
담당 부서	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	책임자	과 장	최현용 (02-748-574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준 (02-748-5758)
담당 부서	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수희 (042-481-74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영 (042-481-745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MOVE TOMORROW